

"높이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눅카 14, 11)



성당

학년

이름

서명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28(인동) 천주교 원주교구청 청소년교육국
033)765-4228 e-mail: wjch-O2@hanmail.net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여러분들.
저는 김영웅 베드로 신부님이라고 해요.
더운 여름은 잘 보냈나요?
저는 지금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 라는 나라의 밴쿠버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밴쿠버는 여름에는 한국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한국보다는 따스하지요.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민을 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교 학생도 있고,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도 있어요.
다들 착하고 친절하 사람들이예요.

하지만 가끔 신부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이예요.
그들은 좋은 대학도 나왔고 돈도 많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말보기도 해요.
오늘 복음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 사람들이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창피를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니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창피를 당하지 않게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혹시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고 다른 친구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나요?
자기가 조금 더 낫다고 옆에 있는 친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부님은 우리 친구들이 창피를 당하지 않고, 더 예쁘게 살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알려 주셨어요.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나쁜 자리에 앉으라고 해요.
똑똑하고 돈이 많은 친구들만 사귀지 말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아파하는 친구들이랑도 함께 친구가 되라고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분명 예수님이 알려 주신대로 우리 친구들이 산다면,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 친구들도 더 예뻐지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시면
1. 어떻게 하라고 알려 주셨나요?

- ① 윗자리에 앉는다.
- ② 끝자리에 앉는다.
- ③ 선물을 준비한다.
- ④ 음식을 준비한다.

2. 자신을 낮추는 이는 어떻게 되나요 ?


- ① 부끄러워 진다.
- ② 낮아진다.
- ③ 높아진다.
- ④ 창피해진다.

3. 식사를 베풀 때 어떤 이를 초대해야 하나요?

- ① 친구 ② 형제
- ③ 부유한 이웃 ④ 가난한 이웃

4.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말을 채워보세요.


“의인들이  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1독서  **여행**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17-18.20.28-29

17 **애야, 네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18 **네가 높아질 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20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28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29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2독서  **여행**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8-19.22-24

형제 여러분, 18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 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19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22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23 하늘에 등록된 말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24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여행**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7-14

1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7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8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10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13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14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마리아수녀의 주일 복음 그림**
- 바오로딸쿤텐츠

